

중국, 중소기업 지급준비율 인하

4월1일부터 12개월간 1%포인트 낮춰 ...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

중국은 2012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8.1%로 3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짐에 따라 소규모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1%포인트 낮추는 등 미세조정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新華通信)이 4월14일 보도했다.

지준율 인하 대상은 현(縣)급 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4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표준 지준율보다 1%포인트 낮은 지준율을 적용받는다.

인민은행은 중소기업 지원과 농촌지역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차별적인 지준율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의 조치는 성장률 둔화,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 등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미세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지준율 인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은 4월13일 1/4분기 성장률이 밝혀진 이후 경제환경 악화에 대비해, 시의적절하게 미세조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국무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나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움과 시련에 대비하고 새로운 정책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거시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수요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의 목표지향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확보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억제를 지속하고 지방정부 채무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재정, 세제, 금융시스템, 원재료 가격 체제, 수입배분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16>